

최고의 복, 하나님과 함께함 (시편 84:1~12),

하나님 찬양 드리기

- 오 신실하신 주 (새찬송가 393 / 통 447)
- 주께와 엮드려 (경배와 찬양 287)

Focus,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손바닥에 새겨 놓고 날마다 기억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음 열기 |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 본문 읽기 사 84:1-12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시편 84편에는 성전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시편은 예배하기 힘든 상황에서 쓰인 시 또는 순례자가 성전에 들어갈 때 부르는 노래로 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성전을 너무나 사모해 애가 타고 지칠 정도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사모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사랑과 복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중요함을 알기에 단 하루라도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합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복된 마음가짐에 관해 묵상하게 합니다.

> 말씀 나누기

1-1. 관찰과 묵상 |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을 향한 시편 기자의 마음은 어떠하며, 그가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1~3절)

1-2. 적용과 나눔 |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적이 있었나요? 내 영혼이 쇠약할 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던 때의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2-1. 관찰과 묵상 | 순례자들이 지나가는 길은 어떤 길이며, 하나님과 그분의 성전을 바라보는 자는 그곳에서 어떤 은혜를 입나요?(6절)

2-2. 적용과 나눔 | 고난이 도리어 복이 된 경험이 있나요? 인생의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샘'과 '이른 비'의 은혜를 나누어 보세요.

> 말씀 다지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 성전으로 나아가는 순례의 삶이 축복의 길이라고 노래합니다. 성전이 중요한 것은 그곳이 하나님 임재의 장소며,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갈망'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그에게 은혜와 영화를 내려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전능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연약한 인생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자 하는 마음, 성전에서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 하나님 성전을 가까이하고 사모함으로 주님과 교제가 더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를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달려가 기도로서 힘을 얻어 승리하게 하소서.

마음에 새기기 | “만군의 여호와께 주께 의지하는 복이 있나이다.” 시 84:12